

33장. 파수꾼으로 다시 부르시는 일과 예루살렘의 함락

1. 회복에 대한 복음 (33:1-39:29)

25-32장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33-3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알려 주신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진 후에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 기간에 침묵을 지킨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거짓된 희망이 깨어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되돌리실 것인데, 그 일의 동기는 열국 중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와 이름 때문이고, 그들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여호와와 신으로 새롭게 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약속해 주셨다.

2. 선지자의 회개 전파 (33:1-20)

1) 파수꾼의 사명 (33:1-9)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33:21-22) 예언자 에스겔을 다시 세우신다. 3장에서 예언자를 파수꾼으로 비유하면서 부르셨는데(3:19-21), 이제 그 일을 맡기시려고 다시 부르시는 것이다. 1-6절에서는 적이 올 때에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7-9절에서는 에스겔이 그러한 파수꾼이라고 알려 주신다.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파수꾼처럼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적이 오는 데에도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예언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그 경고를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예언자는 무죄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2)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은 순종 (33:10-20)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소식을 전할 때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참조 18:21, 23). 그렇지만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자기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의 율례’ (33:15)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율례를 지키면 살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과 구원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 의로운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는 누구일까? 쉽게 생각하여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심판을 행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공격하는 적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바벨론의 칼도 세상 나라의 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소망이 있다. 그렇지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회개를 전하여도 이스라엘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한다. 이러한 거역의 배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파된다.

2.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 (33:21-22)

33:21-22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에스겔이 입을 열게 된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 12월 15일에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하여지고,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예언을 시작한다. 24:1에서는 9년 10월 10일에 포위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거의 2년이 지난 후에 함락의 소식을 들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전하여 줄 자가 올 것이고 그 날에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24:25-26),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3. 유다 땅에 남은 자들과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 대한 말 (33:23-33)

1) 유다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 (33:23-29)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임자가 없는 땅의 주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들어서 그 상황을 자기 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피가 있는 고기를 먹고 칼의 힘을 믿으며 간음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칼과 염병과 들짐승으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여호와와 심판이 시행될 때에 그들은 심판주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2)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 대한 예언 (33:30-33)

바벨론에 잡혀 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도 더 나은 점이 없다.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고운 음성의 노래로 생각하여 가볍게 듣고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다.